

습근평 전국교육대회에서 강조

덕이 있는 인재육성 근본임무를 긴밀히 둘러싸고 교육강국 건설 전략목표 향해 착실하게 매진해야

습근평 당중앙을 대표해 전국 광범한 교원과 교육사업일군들에게 명절의 축하와 진지한 문안 전달

리강 사회 조락제 왕호녕 채기 리희 참석 정설상 연설



▲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교육대회가 북경에서 소집되었다.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대회에 참석하여 중요한 연설을 하고 당중앙을 대표하여 전국 광범한 교원과 교육사업일군들에게 명절의 축하와 진지한 문안을 전했다.



▲ 9월 9일, 당과 국가 지도자들인 습근평, 리강, 채기, 정설상 등이 북경에서 40 번째 교원절 경축 및 전국 교육계통 선진집단과 선진개인 표창활동 대표들을 접견했다.

【북경 9월 10일발 신화통신】전국 교육대회가 9일부터 10일까지 북경에서 열렸다.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대회에 참석하여 중요한 연설을 했다. 그는 교육강국을 건설하는 것은 근대 이래 중화민족이 갈망해온 아름다운 바람이며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 민족부흥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선도적 임무, 견실한 토대, 전략적 버팀목인바 반드시 기정목

표를 향해 착실하게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월 10일은 우리 나라 40 번째 교원절이다. 습근평은 당중앙을 대표하여 전국 광범한 교원과 교육사업일군들에게 명절의 축하와 진지한 문안을 전했다.

리강이 회의를 사회했다. 조락제, 왕호녕, 채기, 리희가 회의에 참석했다. 정설상이 총화연설을 했다.

습근평은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지

적했다. 교육은 강국건설, 민족부흥의 토대이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는 계속하여 교육을 국가의 대계, 당의 대계로 삼고 당의 교육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였는바 과학기술과 교육으로 나라를 흥하게 하는 전략을 깊이있게 실시하고 교육현대화를 다그치는 중대한 결책을 내렸으며 2035년에 이르러 교육강국을 건설하는 분투목표를 확립하고 교육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강화하며 교육 체

제개혁 개혁을 부단히 추진하여 새시대 교육사업에서 력사적인 성과를 거두고 구도적 변화가 발생하도록 추동하였으며 교육강국 건설이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디게 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가 건설하려는 교육강국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교육강국으로서 반드시 강대한 사상정치적 인솔력, 인재 경쟁력, 과학기술 지지력, 민생 보장력, 사회 협동력, 국제 영향력을 갖추므로

써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 민족부흥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유력한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교육강국을 건설하는 것은 복잡한 계통공정으로서 우리들이 덕이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이 근본 임무를 긴밀히 둘러싸고 덕치체미로 전면적으로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하는 데 착안해 사회주의의 학교 운영 방향을 견지하고 계통관념을

견지하고 운용하여 국가전략을 지지하는 것과 민생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간의 관계, 지식을 학습하는 것과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것간의 관계, 인재를 양성하는 것과 사회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간의 관계, 질서를 규범화하는 것과 활력을 불려일으키는 것간의 관계, 중국 대지에 뿌리를 박는 것과 국제 경험을 참조하는 것간의 관계 등 중대한 관계를 정확히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 2면으로

길림성 제 3 회 소수민족문예공연 개막

여러 민족 함께 아름다운 길림의 다채로운 화폭 그려

중앙민족사업회의와 길림성당위 민족사업회의의 정신을 관철 실시하고 중화민족공동체의를 확고히 다지는 것을 주선으로 새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길림성정부가 주최하고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와 길림성문화관광청, 길림성라디오텔레비죤방송국, 길림시인민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길림성 제 3 회 소수민족문예공연 개막식이 9월 10일, 길림시인민대극장에서 열렸다.

이번 공연은 '아름다운 길림', '손에 손잡고', '한마음으로 꿈을 꾸다' 등 3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전 성 11개 지역 대표단의 민족문예일군들은 열정적인 공연을 통해 예술을 교량으로, 창작을 뉴대로 삼아 사상을 교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여러 민족의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화를 보여줌으로써 중화민족공동체의를 확고히 다지는 사상적 합의를 공동으로 연출했다.

무용 〈춤추는 고드름〉, 노래 〈갈



은 하늘 아래에서〉, 비파연주 〈비단의 길에서 꿈을 찾아〉 등은 부동한 표현 방식으로 길림성 여러 민족 아들딸들이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과학적인 인도하에 한마음한 뜻으로 고군분투하는 정신면모를 충분히 보여주었다.

공연이 막을 내리자 현장에 있던 시민 장추매는 이렇게 말했다.

“공연은 매우 감동적이었다. 모두

가 함께 아름다운 길림의 다채로운 화폭을 그려냈으며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시대의 환가(歡歌)를 불렀다. 이는 우리 성의 여러 민족 군중들이 손에 손잡고 단결진보하며 공동번영하는 정신적 풍모를 충분히 보여주었다. 현장에서 민족문화의 향연을 느낄 수 있어 매우 격동되었다.”

이번 공연은 20차 당대회와 중앙

민족사업회의가 소집된 이래 처음으로 개최되는 길림성의 대형 민족문예공연이다. 이는 중화민족공동체의를 확고히 다지는 것을 주선으로, 중화문화의 동질감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고양하고 여러 민족의 교류와 융합을 촉진하며 여러 민족이 공유하는 정신적 삶의 터전을 구축하는 중요한 담체이다.

이번 공연은 성내 11개 지역 대표단이 신청한 82개 종목중에서 18개 성악 종목과 23개 무용 종목을 선정했으며 이 밖에 상황극과 희극단극도 보여주었다.

이번 공연은 9월 13일에 폐막된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성 직속 관련 단위, 전 성 11개 지역 대표단과 3개 자치현, 길림시 주재 신강사업팀, 관련 학원과 문예단체, 길림시 관련 부문과 사회각계 군중 대표 등이 개막식에 참석했다.

/ 오건 최승호 기자



훈춘도로통상구 출입국 령객 50 만명 초과 사상 최고치

훈춘통상구는 길림성의 유일한 대외로씨야 료로통상구이다. 다국간 관광 열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올해 9월 2일 오전 10시 12분 기준 길림출입경변방검사총소 훈춘출입경변방검사소에서 검사한 출입국 령객은 연인원 50 만명을 넘었으며 지난해 동기 대비 무려 209%나 성장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일 11시, 훈춘도로통상구 입국홀은 북적북적했다. 입국 령객들은 이민관리경찰의 인도하에 질서있게 입국수속을 마쳤다. “중국에 처음 왔는데 줄을 서서 입국하기까지 15분 밖에 걸리지 않아 매우 편리합니다.” 한 로씨야 국적의 관광객이 흥분해서 말했다.

훈춘통상구에 따르면 다국간 관광객들이 입국하는 첫 역에서 중국 관광의 편리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길림출입경변방검사총소 훈춘출입경변방검사소는 부단히 근무 모식을 혁신하여 훈춘도로통상구에서 ‘7일 × 1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부대조치를 부단히 보완하고 여행사가 국제

단체관광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지지하며 통상구 접대팀의 절차를 최적화하고 여행사와 관련 대리단위가 변방검사소 근무 현장에 와서 관광단체를 맞이하도록 하라했다. 령객 흐름 밀집구역에 경찰력을 증파하고 대기구역 등 완충구를 설치하며 적시적으로 자문, 인도와 질서 유지 등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로악자 등 특수 부류 관광객을 배려하여 다국관광 체험감을 향상시켰다.

훈춘출입경변방검사소 부소장 리춘위는 “올 들어 훈춘도로통상구의 령객 흐름은 급격히 증가되었고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운행되었다. 우리는 실시간으로 령객 흐름량의 변화를 감시하고 근무 예비안을 보완했으며 경찰력을 과학적으로 조율하고 검사 절차를 최적화해 광범한 령객들이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통관할 수 있도록 확보함으로써 다국간 령객의 통관과 변경 무역을 보호해왔다.”고 소개했다.

/ 길림일보